

도계자동화 설비 제작기술 · 동계 세계제일 자선 무료컨설팅으로 설비 효율성 증대에 주력

태진기계

『이제 단순히 기계를 생산해서 업체에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기계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가 만든 기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방법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도계 자동화설비 부문에서는 세계 어느 회사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는 태진기계 김선유사장은 자사제품의 판매에 앞서 태진의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이해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무료 컨설팅을 실천에 옮기려고 많은 준비를 해왔다는 김사장은 신규 투자 증설 또는 단위기계 투자에 이르기까지 짜집기 형태의 투자는 사업자의 출혈만 발생시키게 된다면 이럴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 말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구제역, 광우병으로 인하여 가금육의 소비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의 업체들도 청정국의 가치를 살리기위해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

HACCP 적용 도계장 시설기준에 맞추기위해 건축물의 구조에서부터 자동화 위생가공설비 도입에 이르기까지 국내 도계장들도 급속히 변모를 하고 있으며 태진기계도 관련업체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육계계열사업은 사료, 부화, 양계, 도계,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범위가 결코 단순하지 않은 만큼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심도있게 검토, 투자해야 할 특수분야라는 것이 김선유 사장의 생각이다.

도계장 건축시 적절한 부지의 선택은 물론 위생설비의 기본은 건축물의 구조에서부터 시작되며 위생 자동화 설비 및 부대 설비들의 효율적인 위치선정, 냉동, 냉각, 냉각수 가공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넘



태진기계

태진기계

어갔다는 낭패보기 십상인 것들이라는 것이다.

특히 위생문제와 직결되는 가식 및 불가식 내장, 우모, 혈액등의 이송 및 처리설비에 대한 투자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자문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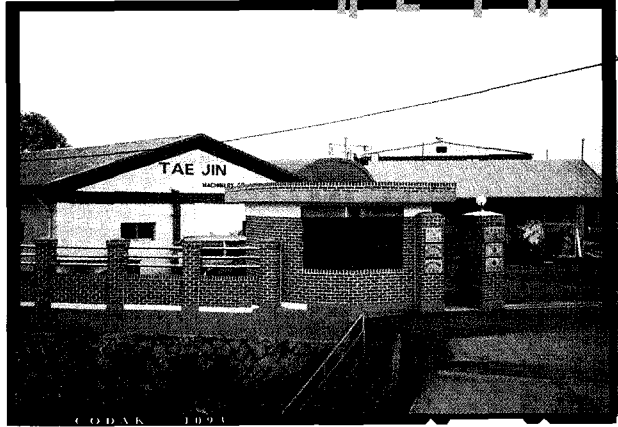
도계장 신규 투자시 실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김선유 사장은 첫째, 우선 시설 투자가 많은 곳들을 방문, 충분히 둘러보고 둘째, 시설제조사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달라는 것이다.

셋째로는 당장의 현실에만 급급하지 말고 작업능력의 사전 스페이스를 충분하게 잡아 나중에 또다시 투자를 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

지난 16년 동안 도계장과 거래해왔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불과 수 개월전에 수익원을 투자하고 사전에 공간 미확보로 엄청난 손실을 자초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는 것이다.

『태진이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물량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데에는 저를 비롯 우리 종업원들이 땀땀 뭉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것도 있지만 그 동안 관련업계의 조언과 배전의 지도편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업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다양한 신제품의 개발, 위생적이고 첨단화된 자동화 설비, 내구성이 탁월한 부품 개발,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이며 장기적 계획수립에 의한 투자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업계의 발전에 위해 전 직원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직원이 50여명에 불과한 중소기업이지만 전직원의 2/3가 장기 근속자로 일에 대한 숙련성에 있어



태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태진기계는 태진의 제품이 타 메이커의 동종설비에 비해 부품의 내구성이 미달될 시 사용중인 기계라 할 지라도 6개월 이내에는 반품까지 받아주고 있다.

이같은 태진의 자존심은 도계설비의 수출로도 이어져 말레이시아 생기찬사에 50만불 상당의 기계를 수출한데 이어 또다시 공미영사에 35만불 상당의 도계장비를 수출하는 등 해외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또한 하자보증기간이 타 회사의 기종에 비해 2배에 달한다며 이미 지난 96년 2월 정부가 품질을 인정하는 EM마크를 획득할 정도로 태진의 제품에 대해서는 자신있다는 것이 김선유 사장의 공언이다. ◯